

뉴스룸 | 최신기사

<올림픽> 볼트, 사상 네번째 '단거리 3관왕' 노린다

송고시간 | 2008-08-17 17:48



장현구 기자

기자 페이지

<올림픽> 볼트, 사상 네번째 '단거리 3관왕' 노린다

(베이징=연합뉴스) 특별취재단 = 16일 베이징올림픽 남자 육상 100m에서 9초69의 세계신기록 및 올림픽 신기록을 세우고 강렬한 데뷔전을 치른 우사인 볼트(22.자메이카)가 사상 네 번째 단거리 3관왕을 이룰 수 있을지 주목된다.

단일 올림픽에서 단거리 대표종목인 100m, 200m, 400m 계주 세 종목을 휩쓴 남자 선수는 역대 세 명에 불과하다. 세계선수권대회에서는 1999년 모리스 그린과 지난해 타이슨 게이(이상 미국)만이 해냈다.



시대가 낳은 불세출의 스프린터가 아니고서는 단거리 3관왕을 감히 넘볼 수 없었다.

100m는 1896년 하계올림픽 시작과 함께 정식 종목으로 출발했다. 200m는 1900년 파리올림픽부터, 400m 계주는 1912년 스톡홀름올림픽부터 포함됐다.

3대 종목을 휩쓴 첫 선수는 1936년 베를린올림픽에서 4관왕에 오른 제시 오웬스(미국)였다.

오웬스는 단거리 세 종목과 멀리뛰기까지 금메달을 따내 흑인과 유대인의 올림픽 출전을 극력 반대한 나치 정권의 괴수 아돌프 히틀러의 코를 납작하게 만들었다.

오웬스의 바통을 이은 인물은 바비 모로(미국)다. 그는 1956년 멜버른올림픽에서 100m 우승을 거머쥔 뒤 200m와 400m에서는 각각 올림픽 기록과 세계기록을 작성하면서 단상 꼭대기에 올라섰다.

최근 계보를 이어간 이는 역시 미국의 칼 루이스다. 그는 1984년 LA 올림픽에서 오웬스처럼 단거리 3종목과 멀리뛰기까지 우승해 4관왕에 올랐다. 루이스는 올림픽에서만 멀리뛰기 4회 연속 우승, 100m 2회 연속 제패, 200m 1회, 400m 계주 등 두 차례 우승 등 금메달을 9개나 땀다.

단거리 강국 미국 선수의 전유물이었던 3관왕에 볼트가 베이징올림픽에서 도전장을 내밀었다.

그는 전날 100m 우승 후 "200m와 400m 계주에서도 우승에 도전하겠다"며 출사표를 던졌다.

볼트는 올해 주종목 200m에서 출전 선수 중 가장 좋은 19초67을 기록했다.

손 크로퍼드, 월크 디스(이상 19초86) 월러스 스피어먼(이상 미국, 19초90) 등이 경쟁자로 꼽히지만 지난해 세계선수권 대회 우승자로 가장 강력한 라이벌 게이가 출전하지 않아 금메달 가능성은 100m보다 더 높다.

400m 계주에서도 전날 100m 5.6위를 뒀던 아사파 파월, 마이클 프레이타(이상 26)가 볼트와 호흡을 이룬다면 게이가 출전하는 미국보다 기량면에서 백중 우세해 역시 유리한 게임을 펼칠 것으로 전망된다.

◇올림픽 단일대회 단거리 다관왕



핫뉴스 →

日 공주와 결혼한 대학 동기, 뉴욕 변호사 시험 또 불합격

프로야구 LG-SSG전 오심 내린 심판, 2군 강등 징계

"마지막 순간 마음 바꿨다" 2015년 파리 테러 범이 밝힌 '그날'...

박진, 광우병 사태 때 美당국자에 "한국에 너무 많은 민주주의"

한 육사 생도 영 왕립사관학교 첫 졸업...여왕 "양국..."

기원전 2-3세기 마야 달력 파편 발견..."가장 오래..."

한국 유튜브, 촬영 중 실수로 우크라이나 국경 넘었다 ...

박찬욱, 칸 초청에 "기쁜 복소식...오래 기립박수 칠..."



가족찾기 사연 보러가기



| 연도 | 100m-200m(더블) | 100-200-400m 계주(트레블) |
|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|
| 1904 세인트루이스 | 아치 한(미국) | |
| 1912 스톡홀름 | 앨프 크레이그(미국) | |
| 1928 암스테르담 | 퍼시 윌리엄스(캐나다) | |
| 1932 LA | 에디 톨런(미국) | |
| 1936 베를린 | 제시 오웬스(미국) | 제시 오웬스 |
| 1956 멜버른 | 바비 모로(미국) | 바비 모로 |
| 1972 뮌헨 | 발레리 보르조프(구 소련) | |
| 1984 LA | 칼 루이스(미국) | 칼 루이스 |

STYLE>@import url("YNAEdit.css");

cany9900@yna.co.kr

 관련기사

<올림픽> 9초6 시대..인간 한계 어디까지
<올림픽> '번개의 질주'..100m까지 딱 41발자국
세계신 금메달 장미란, 사청률도 1위
<올림픽> "공기 걱정은 기우였나"..세계신기록 붓물

제보는 카카오톡 okjebo

<저작권자(c) 연합뉴스, 무단 전재-재배포 금지> 2008/08/17 17:48 송고

당신이 함께 보면 좋은 콘텐츠

당신이 좋아할 만한 콘텐츠

현장 영상 →

▶ 01:18

[영상] 입발 묶인채 두 눈만 열뚝뚝...누가 확대했나

▶ 02:22

[영상] 곡사포-수송헬기-정갑차...美, 꺼렸던 무기들
결국 우크라이나

[영상] 미국 최고위급 키아우 방위
컨 등 후보군"

당신이 함께 보면 좋은 영상



에디터스 픽 Editor's Picks

● 영상

▶ 01:59

[영상] 윤석열, 안철수 '패상' 질문에 "아무 문제 없다고 생각"

● 뉴스

오늘 거리두기 해제 발표, 2년 1개월만 종료...마스
크는 그대로

尹당선안 安위원장 만찬 회동..."공동정부 한치의 흔들림 없
어"

尹 당선인 "韓, 위상 맞게 외교정책 강화...美와 더 강력한 동맹"

엄중의 시간' 시작됐다...한동훈, 청문회 준비 돌입

"의학에 뜻' 정호영 아들, 학부 4년간 관
련과목 2개 수강"

댓글 많은 뉴스

- 1

김건희 여사 팬카페, 악성 댓글 누리꾼들 경
찰에 고발

136
- 2

정호영 자녀, 경북의대 편입전 아버지 있던 경북
대병원 자원봉사

60
- 3

'유퀴즈'尹당선인 출연 논란..."프로그램 취지와
안 맞아"(종합)

58
- 4

두문불출 이재명, 이발 염색...조기등판론 속 활동
재개 예열?

43
- 5

문대통령, 손석희와 대담...靑 "임기 5년 소회 밝
힐 예정"

38

뭐하고 놀까? #홍→

유튜브 채널



SNS



뉴스홈 최신기사 정치 북한 경제 산업 사회 전국 세계 문화 라이프 연예 스포츠 오피니언 사람들

비주얼뉴스 영상 포토 화보 #D 그래픽

뉴스상품

프리미엄뉴스 뉴스리더 인터넷맛충형 보도자료 해외배포 보도자료 국내배포

| | | | |
|--------|---|--------|---|
| 테마별뉴스 | 핫뉴스 토피뉴스 주요뉴스 긴급뉴스 단독뉴스 많이본뉴스 | 출판물 | 이매진 연합연감 영문연감 한국인물사전 단행본 월간 마이다스 |
| 뉴스+ | 이슈돌보기 팩트체크 재난포털 날씨 주요신문 토피뉴스사설 아시아 헤드라인 | 광고 | KTX 열차 AREX 공항철도 모바일 PC홈페이지 출판물 |
| 모바일 뉴스 | 모바일웹 모바일앱 | 콘텐츠 판매 | 보도사진 이미지 그래픽 동영상 인물 |
| 외국어 | English 中文 日本語 عربي Español Français | 관련사이트 | 연합뉴스TV 인포맥스 한민족센터 K컬처기획단(K-ODYSSEY) 채용 IR 클럽 #홍 |

계약사제휴문의